



의상을 입어라! 웃어라! 광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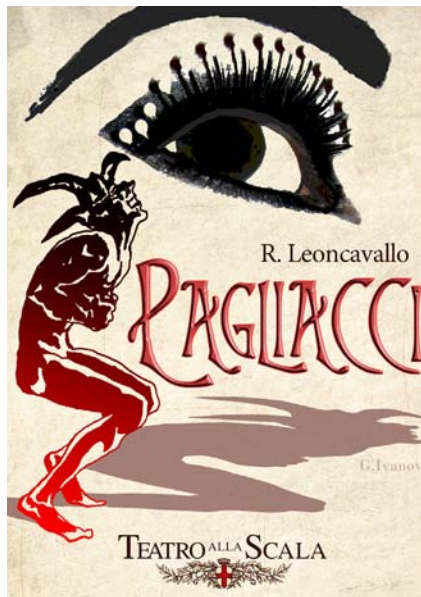
— 오페라 <팔리아치> —

8월 15일은 우리에게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로 기억되지만, 가톨릭에서 이날은 성모승천 대축일로 부활절, 성탄절만큼 중요한 축일 중 하나로 꼽힌다. 이탈리아 작곡가 레온카발로^{R.} Leoncavallo (1858~1919)는 이 한여름의 성모승천 대축일을 배경으로 일어난 치정살인을 소재로 오페라 <팔리아치^{Pagliacci}를 만들었다.

‘광대들’을 뜻하는 제목을 가진 작품 <팔리아치>는 레온카발로가 어린 시절 부정한 아내를 살해한 광대의 재판을 지켜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작품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성모승천대축일을 맞아 마을에 공연하러 온 유랑극단 단장의 아내가 다른 사내와 눈이 맞는다. 이를 알게 된 단장은 격분했고 감정을 억누르며 무대에 올랐지만 실제 상황과 똑같이 전개되는 극에 그만 이성을 잃고 무대 위에서 아내와 그 사내를 죽이고 만다는 이야기다. 2막으로 나뉜 오페라지만 단막극에 가깝게 짧은 시간 강렬한 충격을 주고 끝나는 이 오페라는 처음부터 큰 성공을 거뒀다.

작품의 주인공으로 당시 천대받던 유랑극단의 광대들이 등장하는데, 이전 오페라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하층민들이 주인공으로 나와 자신들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 오페라와 함께 묶여 자주 공연되는 마스카니^{P. Mascagni} (1863~1945)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Cavalleria Rusticana}도 마찬가지로 시골의 보잘것 없는 촌부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이들 오페라에는 고귀한 영웅이나 귀족도 없고 인간 본성에 대한 심오한 성찰이나 고뇌도 없다. 다만 자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하층민들의 즉흥적인 감정 표현과 분출에 따른 냉정한 결과만이 있을 뿐이다. 말 그대로 신문 사회면에



흔히 등장할법한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피비린내를 풍기는 충격적 결말에 놀라 벌어진 관객들의 입이 채 다물어지기도 전에 무대는 막을 내린다.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오페라가 흔치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베리시모^{Verismo} 오페라’라고 불

리는 이탈리아 사실주의 오페라의 출발이 되었다. 19세기 유럽에 불어온 사실주의 바람은 당시를 지배했던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술에 대해 반기를 들고, 평범한 사람들의 사실적인 삶과 어찌면 냉혹하기까지 한 현실을 묘사했다. 미술에서 시작된 사실주의는 문학을 거쳐 음악에까지 이르러 예술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다시 <팔리아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젊은 아내가 마을 청년과 몰래 도망가기로 약속한 것을 알아버린 유랑극단의 늙은 단장이자 광대인 카니오는 참담한 심정으로 얼굴에 분칠을 한다. 자신의 괴로운 속사정보다 관객과 약속한 공연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때 카니오는 <의상을 입어라^{Vesti la giubba}를 노래한다.

의상을 입어라, 하얀 분을 발라라! 손님들은 여기에 돈을 내고 웃으러 온다…… 웃어라 광대여, 모두가 박수 치고 야단이겠지! 피로워 흐느낌이 치솟으면 우스개 짓으로 바꿔라.

카니오가 광대 분장을 하면서 자조적으로 부르는 이 애끓는 아리아는 오늘날까지 드라마틱 테너의 명곡으로 남아있다. 오페라 <팔리아치>는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연극은 끝났다’고 울부짖는 카니오의 절규로 막을 내린다. 인간다운 감정을 감자기 드러낸 광대의 낯선 얼굴에 우리는 당황하지만 천사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실주의 오페라야말로 진정한 근대 오페라의 시작이 아닐까.